

상징과모래놀이치료, 제16권 제2호  
*Journal of Symbols & Sandplay Therapy*  
2025, 8, Vol. 16, No. 2, 75-111.  
doi <https://doi.org/10.12964/jsst.25006>

## 숨 쉬는 그릇 항아리: 인내와 변화의 상징

The Jar as a Breathing Vessel:  
A Symbol of Patience and Transformation

이 정 옥  
Lee Jeongok

The English full text is right after the Korean one.



## 숨 쉬는 그릇 항아리: 인내와 변화의 상징

### The Jar as a Breathing Vessel: A Symbol of Patience and Transformation

이 정 옥\*

Lee Jeongok

#### <국문요약>

본 연구는 민담, 종교, 연금술, 그리고 모래놀이치료에 나타난 항아리의 상징성을 탐색하였다. ‘우렁각시’, ‘단지 할머니’, ‘식장산의 효자’와 같은 민담 속에서 항아리는 무의식의 통합, 모성, 인내, 심리적 변화를 상징하는 그릇으로 등장한다. 천주교, 도교, 불교와 같은 종교적 맥락에서는 항아리가 고난과 인내, 내면의 성찰과 수용을 통해 자기실현을 상징한다. 연금술에서는 질그릇(aludel)이 내적 변화와 개성화의 그릇으로 기능하며, 흑화(nigredo), 백화(albedo), 적화(rubedo)의 과정을 통해 대극의 통합과 재탄생을 상징한다. 모래놀이치료의 중년 여성 사례에서 항아리는 억압된 감정과 모성에 대한 양가감정을 품은 채, 알아차림과 치유를 통해 성숙과 회복의 상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난 항아리의 상징적인 모성과 여성성, 인내, 성숙, 죽음과 재탄생, 궁극적으로는 치료적 변화를 상징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항아리, 상징, 인내, 변화, 모래놀이치료

---

\* 주저자, 강남맘편한심리상담센터 소장 / E-mail: [jade935@daum.net](mailto:jade935@daum.net)



Copyright ©2025, Korean Society for Sandplay Therap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symbolism of the jar as it appears in folktales, religion, alchemy, and Sandplay therapy. In Korean folktales such as *The Snail Bride*, *The Grandmother in the Jar*, and *The Filial Son of Mt. Sikjang*, the jar appears as a symbolic vessel representing the integration of the unconscious, motherhood, patience, and psychological transformation. In religious contexts such as Catholicism, Taoism, and Buddhism, the jar symbolizes self-realization through suffering, endurance, inner reflection, and acceptance. In alchemy, the earthenware vessel (aludel) serves as a container for inner transformation and individuation, symbolizing the integration of opposites and rebirth through the stages of nigredo, albedo, and rubedo. In a case study of a middle-aged woman in Sandplay therapy, the jar emerged as a symbol of maturity and healing, containing her repressed emotions and ambivalent feelings toward motherhood, and reflecting a process of awareness and therapeutic chang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dentifies the symbolic significance of the jar across various domains—as a representation of motherhood and femininity, patience, maturity, death and rebirth, and ultimately, therapeutic transformation.

*Key words : jar, symbol, patience, transformation, Sandplay therapy*

## I. 서론

항아리(jar)는 선사 시대부터 일상과 의례 속에서 필수적인 용기로 사용되어 왔으며, 제사 용 그릇(ritual utensil)이나 저장 용기(storage vessel) 및 찻잔(tea cup)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다(김민경, 2016). 단순한 생활도구를 넘어 항아리는 전래동화, 종교, 연금술 등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풍부한 상징성을 지닌다. 전래동화 ‘우렁각시’는 항아리 상징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야기 속 가난한 총각은 논에서 주운 우렁이를 항아리에 담아두는데,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나와 집안일을 돌본다. 이후 총각은 그녀와 혼인하며 새로운 삶을 맞이한다. 민담에서 ‘홀로 사는 총각’은 자신의 여성성(anima)과 ‘통합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결국 우렁각시를 통해 내면의 결핍을 인식하고 통합의 과정을 경험한다. 아니마(anima)는 남성의 무의식 속 여성성 원형으로, 남성의 삶에 창조적 질서와 감정적 균형을 부여한다고 보았다(Jung, 1959). 항아리에 우렁이를 담아두는 행위는 무의식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존중하며 품는 ‘담아냄(containing)’의 상징이며, 이 과정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개성화(individuation)의 여정을 드러낸다.

항아리는 문화사적으로도 모성과 여성성의 원형을 구현하는 상징물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용기장들이 천주교 신자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8세기 말, 천주교가 조선에 처음 전해졌을 때 그것은 종교로서가 아니라 실학자들의 학문적 관심, 즉 ‘천주실의(天主實義)와 같은 서학 연구를 통해 유입되었다. 그러나 유교적 제사 의례를 거부하거나 신주를 불태우는 등의 행위가 전통 윤리, 특히 ‘효(孝)’를 부정한다고 여겨져 박해와 탄압을 받았다. 신해 박해(辛亥迫害; 1791)를 기점으로 교우촌이 형성되었고, 신자들은 신분을 숨기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용기를 제작하였다. 용기가마는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박해를 피해 숨을 수 있는 은신처이자 공소(미사 장소)로 활용하였다(민경은, 2005). 이러한 용기가마는 땅을 파서 만든 포용적 공간으로, 모성적 수용과 보호를 상징하며, 그곳에서 드린 미사는 고난과 탄압을 견디고 변화를 이루는 자기실현의 행위로서 개성화의 상징이 되었다. 천주교는 처음에는 실학자들의 학문적 탐구로 시작했으나, 박해의 시간을 거치며 점차 종교로서 정착하고 확산되었다. 신자들은 산속에서 용기를 구우며 생계를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신앙을 지키고 전파하였다. 용기는 이렇게 신앙과 생존, 인내와 변화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항아리는 단순한 저장 용기를 넘어 모성적 여성성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기호로 여겨진다. 그 형태는 아기를 잉태한 여성의 모습과 유사하여 모성(maternity)의 상징으로 인식되며, 둥글고 안으로 품는 구조는 여성의 자궁을 떠올리게 한다(Cooper, 1978; Neumann, 1955). 이러한 형태적 특성은 항아리를 단순한 도구를 넘어 어머니의 존재와 직결된 상징적 사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이는 항아리가 생명을 잉태하고 보호하는 여성의 창조적 속성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을 지닌다(박순영, 2010). 또한 항아리는 내용물을 단지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숙성시키고 변화시키는 공간이다. 예를 들어, 음식은 항아리 안에서 발효를 거쳐 새로운 성질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는 여성의 자궁에서 생명이 자라나 완성되는 과정과 유사한 상징성을 가진다(오진령, 2012). 이처럼 항아리는 숙성, 변화, 변환의 공간으로서의 숙성을 지니며, 정적인 보관의 개념을 넘어 역동적인 변환의 원리를 담고 있다(Neumann, 2009). 이러한 숙성은 모성의 또 다른 측면, 즉 생명을 품고 길러낸 후 독립적인 존재로 내보내는 과정과도 일치한다.

우리나라의 민간 풍습에서 항아리는 매우 소중하게 여겨졌다. 이사할 때 가장 먼저 옮겼으며,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담아 놓아야 잘 산다.”, “항아리를 꿈에 보면 매사가 길하고 장수한다.”는 속담이 전하는 바와 같이 재물과 길조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옛 어머니들은 항아리 곁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장독대는 바람이 잘 통하고 햇살을 가득 드는 자리에 정갈하게 관리되는 신성한 공간이었으며(한국문화상징사전편집위원회, 2006), 김치·된장·간장·고추장이 발효·숙성되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토착적이고 건실한 모성상을 구현했다(이부영, 2002). 우리 문화에서 장독과 옹기는 집안의 기운과 운을 저장하는 생명의 그릇으로 여겨졌고, 언제나 어머니의 손길 속에 관리되고 돌봄의 대상이 되었다(김열규, 2001). 장독대에 장을 담그는 행위는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위이자, 어머니의 돌봄과 생명 유지의 노동을 상징한다. 이는 곧 항아리가 마치 자궁처럼 ‘생명을 품고 익히는 공간’이라는 상징성과 연결된다. 항아리는 소금, 장, 김치 등을 담아 숙성시키는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김장을 담근다’, ‘김치를 담근다’, ‘장을 담근다’ 등은 담아내는 것, 즉 containing하는 것을 나타내며, 숙성시킨다는 것은 대극의 합일을 하고 수용(받아들임)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예컨대 장을 담글 때 메주와 소금물이 화학 작용을 일으켜 된장이 되듯, 재료가 잘 어우러지면 변화가 일어나지만, 발효가 실패하면 합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김치와 간장의 발효 역시 변화의 상징이다. 나아가 흙과 물을 반죽해 불에 구워 항아리를 만드는 과정 또한 변화와 치유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항아리는 흙과 물을 빚어서 바람에 말리고, 불로 구워 완성되는 자연물로서 원형적 모성성의 상징이다. 유약을 발라서 한 번 구웠다가 다시 유약을 발라 굽는 불의 연단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과정을 거친다(이부영, 2002). 이러한 과정은 받아들임과 기다림을 필요로 하며, 인내와 변화, 나아가 개성화를 상징한다. 원형(archetype)은 인간 무의식의 집단적 기반에 뿌리내린 보편적 이미지이며, 그 중 원형적 모성성(archetypal motherhood)은 생명, 보호, 수용, 영양 공급과 연결된 집단 무의식의 이미지로(Jung, 1959), ‘그릇’, ‘자궁’, ‘토기’는 이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다.

항아리는 1,200~1,300℃의 가마 속에서 구워지며, 이때 형성된 미세한 기공이 내부와 외부의 공기를 순환시켜 발효와 숙성을 돕고, 음식이 오래 보관되도록 한다. 이러한 제작 과정과 기능 속에서 항아리는 ‘숨 쉬는 용기’로서 변화를 품는 존재가 된다(이부영, 2002). 담

긴 내용물은 시간이 흐르며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한다. 예를 들어 소금물과 콩이 발효되어 된장과 간장이 되듯, 항아리 속 숙성 과정은 연금술을 연상시키는 변환의 상징이다. 일상에서 곡식, 김치, 장 등을 담는 필수 도구이자, 생명과 변화를 품는 그릇으로서 항아리는 깊은 문화적 의미를 지닌다.

연금술(alchemy)은 처음에 구리, 주석, 납, 아연 등과 같은 평범한 금속을 가열하여 여러 과정을 거쳐 금으로 변화시키는 기술이었다. 연금술사는 여러 개의 항아리를 연결한 관 모양의 질그릇(aludel)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물질을 넣고 유황과 수은, 소금을 섞거나 소금, 물, 불의 비율을 달리하면 변화의 과정이 일어난다(De Givry, 2003). 또한 금을 얻기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견디며 인내하는 과정에 가치를 둔다. 연금술사는 광석 속에 들어 있는 금을 보는 것처럼 물질 속에 갇혀 있는 영혼을 본다. 추출해낸 것에 모순되는 것을 첨가하여 물질 속에 있는 영혼이 깃들어야 금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물리적 작업에 상상을 통해 영적(spiritual) 의미를 투사함으로써 물질의 혼을 다루고 있었다. 이를 세계의 혼(anima mundi)이라고 한다(Annehale, 2006). 연금술사들의 관심은 물질에 섞여 있는 원 물질의 변환을 통해 금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원 물질을 금으로 변화시킬 수 없었다. 연금술사들은 물질적인 금을 추구하기 보다는 물질이 지니고 있는 순수성을 통해 정신적 가치, 즉 물질 속에 있는 본질인 실체나 신적인 본질(god's essence)을 상징하는 금이나 신비적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철학자의 돌(philosopher's stone)을 찾고자 하였다(Andrea Aromatico, 1998). 이는 신성을 지닌 자기(Self)의 상징인 금을 얻는 과정에서 변화와 치유, 궁극적 통합을 불러오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연금술사들은 물질적인 금이 아닌 철학적 금을 만드는 것으로 영혼의 변화인 자신의 영적 변화에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변화 과정은 분석심리학에서 자기(Self)와 연결시켜 치유의 과정을 설명하였다(Jung, 1985/2004). 연금술사의 질그릇(aludel)은 작업이 일어나는 인위적 자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태아가 자궁 속에서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변화하고 성장하듯이 연금술의 용기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결과물을 생성해내는 인내의 과정을 모성적인 측면으로 보았다(Coudert, 1995).

모래놀이치료에서 모래상자는 모성적인 공간, 심리적인 자궁을 제공하는 용기(容器)로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간에서 자기(Self)를 나타내고 상처를 치유하며 변화가 일어나는 장이다(김보애, 2004). 이 모래상자에는 기본적으로 모래가 들어있는데, 모래는 대지, 모성, 존재, 신체 등을 상징하는 상징적 재료이다. 모래는 지구를 형성하는 기초 물질인 땅, 즉 대지이자 태모(太母)로서, 모든 생명체를 품고 성장시키며 변화하게 하는 힘을 상징한다. 특히 모래는 오랜 시간이 흘러 바위가 부서지고 깎여 만들어진 것으로, 한 알 한 알이 지구의 깊은 역사를 간직한 본질적 원질료(prima materia)라 할 수 있다. 이는 연금술에서 인간정신의 변화 과정을 상징하는 '분화 이전의 물질'로 이해되며, 종종 꼬리를 무는 뱀(우로보로스)의 형상으로 상징화된다(장미경, 2022). 이러한 원질료로서의 모래는 모래상자가 곧 내담자의

정신과 육체, 그리고 무의식의 상징 공간임을 의미하며, 그 안에서 무의식의 재료들이 표출되고 다시 정신과 육체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개성화(individuation)가 일어난다. 개성화는 자기(Self)와의 만남을 실현하는 것이며, 이때 모래상자 속 보물 피겨는 자기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모래상자는 내담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릇과도 같은 상징적 공간이며, 내적 탐색과 성장으로의 변화를 가능케 하는 자유롭고 안전한 모성적 공간이다. 이는 향아리가 모성적 여성성과 변화·숙성의 용기로 작용하듯, 모래상자 또한 심리적 치유와 변형의 과정을 담아내는 또 하나의 상징적 향아리로 볼 수 있다.

모래놀이치료의 과정은 내담자와 상담자의 일체성(진실성)이 영향을 주므로 상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내담자가 모래장면을 만드는 동안에는 침묵이 필요하다. 물론 내담자가 물어보는 경우에는 대답을 해줘야 하지만, 상담자가 질문을 하게 되면 내담자를 충분히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므로, Steinhardt(2013)는 “만들면서 어떠셨습니까?”라는 질문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였다. 상담사는 침묵이 흐르는 시간에도 조급한 마음을 품지 않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고, 억압된 내담자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연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만일, 충분한 연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상담사는 내담자의 주제와 방향을 존중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이야기를 경청하고 모래장면과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전체성을 실현하는 개성화 과정으로 변화할 수 있다. 즉, 상담사는 즉각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을 버리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서 내담자의 감각과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 경청한다면, 상담사에 대한 신뢰를 형성(Rapport)한 내담자는 자기를 발견하는 개성화를 향한 피겨를 표현해낼 것이다.

숨 쉬는 그릇 향아리는 그 자체가 모성성의 상징이기도 하고, 어머니들의 물건으로 단순한 물리적 용기가 아니라 ‘생명과 시간, 돌봄과 지속’이라는 상징으로 기능해 왔다. 지금은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화가 많이 되어가다 보니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타인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것이 잘 안되고 있다. 포용과 수용은 타인이 원하는 것을 다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싸우고 투쟁해서 얻어야 하고, 타인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며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것이 여성성의 결핍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개인주의화된 사회 전체가 담아주는 모성적 문화의 결핍 속에서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민담, 종교, 연금술, 그리고 모래놀이치료에 나타난 향아리의 상징을 통합적으로 고찰하고, 특히 모래놀이치료 사례를 통해 향아리가 내담자의 심리적 성장과 치유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아리의 상징성을 모성과 여성성, 인내와 수용, 성숙과 변화의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심리치료 현장에서의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 본론

### 1. 민담 속의 향아리

‘요술향아리’는 변화의 상징으로서 인간 내면의 무의식과 자아의 관계, 욕망과 절제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민담이다(한국문화상징사전편집위원회, 2006). 이야기는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둥그런 향아리를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는 개성화의 여정이 시작되는 시점, 즉 인간이 무의식과 마주하게 되는 상징적 순간을 의미한다. 밭을 일구는 행위는 삶의 토대를 준비하는 과정이며, 이는 곧 향아리를 빚는 전 단계, 원형적인 모성성을 향한 상징적 작업으로 볼 수 있다. 농부가 호미를 향아리에 넣자 호미가 계속 나왔고, 엽전 한 닢을 넣자 엽전이 무한히 복제되었다. 이러한 복제와 증식의 과정은 향아리가 단순한 저장 용기가 아니라 ‘창조’와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모성적 원형의 도구임을 암시한다.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동일한 것이 생성되는 향아리는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에서, 내면의 재료를 의식화하는 과정, 곧 자기(Self)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상징적 공간이다.

그러나 이 향아리를 둘러싼 두 인물, 즉 순수한 농부와 욕심 많은 부자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다. 농부는 향아리의 기능에 감사하며 자연스럽게 그 혜택을 누리지만, 욕심 많은 부자는 물질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향아리를 이용하다가 통제력을 잃는다. 이 민담은 인간이 무의식의 힘을 자아중심적으로만 활용하고, 그 상징성을 되새기지 않을 때 심리적 균형을 잃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향아리에 빠진 아버지가 계속해서 복제되어 나오는 장면은 상징적으로 ‘부성 콤플렉스(father complex)’를 드러낸다. 부성 콤플렉스란, 자아가 독립적인 방향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부성적 권위나 억압 아래 머무르는 상태를 말한다. 이처럼 무의식의 상징을 탐색하지 않고 물질적 욕망만을 추구할 경우, 자아는 개성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퇴행하거나 반복되는 심리적 문제에 갇히게 된다. 요술 향아리는 단순히 무엇이든 복제해 내는 마법의 물건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릇이다. 이 향아리는 인간의 선과 악, 절제와 욕망의 경계에서 작동하며, 자기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다음은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해져오는 민담인 ‘단지 할머니’이다(한국민속대백과사전). 옛날 어느 한 마을에 부모 없는 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던 끝에 어느 날 큰 단지 속에 들어가 울며 잠들게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지 안에서는 아이가 죽지 않고 오히려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건강하게 된다. 아이를 발견한 마을 사람들이 향아리 속을 들여다보자,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이를 먹이고 돌보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 존재를 ‘단지 속 할머니’ 혹은 ‘단지 할매’라 부르며 신성시하게 되었고, 아이는 성장하여 마을의 복을 가져다주는 인물이 된다. 마을에

서는 매년 ‘단지 할머니’에게 제사를 지내며 풍년과 건강을 기원한다는 이야기다.

항아리는 ‘자궁(womb)’ 과 동일시되는 상징적 그릇으로 생명, 보호, 수용, 양육, 인내의 의미를 담고 있다. 단지는 고통이나 결핍을 감추는 도피처가 아니라, 그것을 안고 기다리는 수용의 공간이며 동시에 내면적 치유가 일어나는 성장과 변화의 그릇이다. 아이는 능동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그저 단지 속으로 들어가 울고 잠이 든다. 이는 인내와 수용이라는 여성성의 상징을 보여주며, Jung이 말한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최석환, 2009). 아이는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는 존재로서, 상처와 결핍을 수용함으로써 성장을 이끈다. 단지 속 할머니는 집단무의식 속의 원형적 모성성(Archetypal Mother)을 상징하고, 아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생명 에너지를 공급하는 존재로서 보호자이자 양육자, 치유자의 역할을 한다. 단지 속 할머니는 형체는 없지만, 상처받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어머니와 같이 그녀의 보살핌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 수용을 보여준다. 아이가 항아리 속에서 성장하는 것은 자아와 무의식 간 통합의 준비를 나타내며 이는 곧 인내를 통해 변화가 일어난다는 깊은 상징을 의미한다. 또한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심리적 재탄생의 과정이며 상처받은 자아가 통합된 자기(Self)로 거듭나는 개성화 과정을 나타낸다.

민경은(2005)의 민담집에서 나오는 ‘식장산 효자’ 이야기이다. 옛날 식장산 산기슭에 효자 부부가 노모와 어린아이를 데리고 함께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어머니에게 차려드린 음식을 드리는데 방해가 되자, 부부는 고민을 하다 결국 아이를 산에 묻어버리기로 결심하고 산으로 올라가 땅을 파기 시작하자, 이상한 그릇을 발견하게 된다. 그 그릇을 들여다보던 아내는 눈물로 아이도 살리고 어머니도 봉양하겠다고 호소하자, 이에 효자도 동의하여 다시 아이를 업고 집으로 왔다. 효자는 그 그릇을 잘 닦아 곡식과 엽전을 넣어 보았더니, 그것들이 가득 차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 기적의 그릇을 효성으로 인한 하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오직 어머니 생전에만 사용하겠다는 다짐을 지킨다. 결국 효자 부부는 성실함으로 부자가 되었고, 어머니 사후에는 그릇을 다시 가져왔던 자리에 묻는다. 이로 인해 산 이름이 식장산 또는 식기산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 민담은 효를 강조하던 시대의 이야기로 현대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효자 부부가 산으로 가 땅을 파는 행위는 무의식의 세계로 진입을 의미하며, 변화와 성장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를 묻으려는 과정에서 기적의 그릇, 즉 무의식의 여성성을 발견하고 담아내는 포용력으로써 눈물로 호소하여 아이를 구하게 된다. 이는 무의식의 여성 원형인 아니마(anima)가 의식세계에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Jung, 1959). 효자 부부는 도덕적 갈등을 겪고, 욕망과 양심 사이에서 아이도 살리고 노모도 봉양하는 선택을 하며, 기적의 그릇을 통해 Self로 향하는 길로 나아간다. 이 길은 고통스러운 중용의 길이며, 자아가 무의식의 힘을 수용하면서도 그에 휘둘리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개성화 과정(individuation)을 상징한다.

## 2. 종교에서 향아리

조선 후기 천주교 신자들은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산속에 숨어 살며 향아리(옹기)를 만들어 팔아 생계를 이어갔다. 향아리는 생존의 수단일 뿐 아니라, 신앙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보호의 상징으로서 그 안에 신앙 서적이거나 성물을 숨기기 위해 사용하였다. 특히 정약종이 천주교 서적과 성물, 그리고 주문모 신부의 편지를 향아리에 담아 옮기려다 발각된 사건은 신유박해(辛酉迫害)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정치적 갈등과 천주교 탄압이 얽힌 역사 속에서, 향아리는 단순한 물건을 넘어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는 인내와 고난의 상징이 되었다. 신자들은 고통의 순간에도 향아리를 깨뜨리듯 신앙을 버리지 않았으며, 세속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산속에 숨는 선택은 고난을 견디고 수용하며, 내면을 지키는 향아리의 상징성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인내의 과정 속에서 그들의 신앙은 더욱 굳건해지고, 내면의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졌다.

도교에서 향아리는 단순한 저장 용기를 넘어, 속세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선계(仙界)와 연결된 내밀하고 고요한 공간을 상징한다. 후한(後漢) 시대의 전설에서는 신선계 인물이 낮에는 약을 팔고, 밤이면 가게 앞에 걸어둔 향아리 속으로 들어갔다고 전해지며, 그 안에는 해와 달이 있어 작지만 완전한 우주로 여겨졌다(김민경, 2016). 이 향아리는 세속의 고통을 벗어나 내면을 수련하고 인내를 통해 변화를 준비하는 중간 지점으로 기능하며,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시간이 끊어져 흐르고 자기 성찰이 가능한 수련의 공간, 즉 변화와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잠정적 고요의 장소로 이해된다.

기독교에서는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돌향아리에 담긴 물이 예수님의 손을 통해 포도주로 변화되는 장면이 나온다. 이는 포도주가 되기 전, 발효와 숙성이라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그 과정을 거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모습은 예수님 안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상징한다.

불교에서 향아리는 대부분 사리를 담아 탑 안에 넣는데, 이러한 사리 향아리 이미지는 사찰의 단청에서도 발견된다. <그림 1>과 같이 연꽃 모양 받침 위에 석류 모양의 석류둥이 있고, 가운데 향아리 모양 위에 공 모양이 반쯤 나와 있으며, 그 끝에는 하얀 점인 민주점이 있다(이희봉, 2012). 석류 끝에서 나오는 흰 알은 생명의 탄생 과정을 나타내고, 이 생명은 향아리라고 불리는 공 모양에서 나오며, 이 공 모양이 부처의 사리를 담은 향아리이다. 향아리는 자기실현의 변화가 일어나는 태모의 공간을 상징하고, 향아리 안의 사리는 오랜 시간 수행한 공덕의 결과물로서 태모에 의해 부서지고 갈가리 찢겨 죽었다가 재탄생으로 변화하는 남근적 소년을 상징한다(Neumann, 2004/2010). 이처럼 향아리는 자기 파괴와 자기 훼손에만 머물러 있는 남근적 소년을 변화하게 만들고, 부서지고 썩어가는 것은 새로운 형태인 사리가 되어 향아리로부터 나와 민주점으로 나타날 때 죽음을 극복하는 자기실현을

상징한다.



[그림 1] 강원도 고성 화암사 단청에서 보여지는 사리 향아리(2022년 8월14일 촬영)

### 3. 숨 쉬는 질그릇: 향아리

향아리는 먼저 흙과 물을 섞어서 부드러운 상태가 될 때까지 반죽을 한 후, 여러 가지의 기술을 이용하여 원하는 모양으로 완성하여 서서히 건조시킨 다음, 약 850~900도의 가마에서 구워낸다. 향아리를 구워내는 가마는 전통적으로 벽돌이나 점토로 벽을 쌓은 형태이다. 가마에서 초벌로 구워낸 향아리는 표면에 광택을 내고 유약을 바른 후, 다시 1,250~1,300도의 가마에 다시 굽는 과정을 거친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도 흙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깨뜨려 폐기한다(방병선, 2002). 이렇게 향아리는 수십 차례의 치대는 과정을 거치고 고열의 가마에서 반복하여 구워지는 불의 연단을 거치고 때로는 폐기되기도 하는 등 죽음으로의 하강과 재탄생의 제작 과정을 거친다. 여성성인 흙과 물로 빚어진 향아리는 정화와 변용, 재탄생을 상징하는 불과 만나 진흙 안에 있던 불순물이 모두 정화되고 순수한 여성성의 결정체인 향아리로 탄생한다(Cooper, 1978/1994). 한편 향아리를 빚어내는 전통적인 가마를 보면, 벽돌이나 점토로 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여성성을 지닌 흙과 물로 만들어진 가마 내부에 불을 집혀 스스로를 정화하는 동시에,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진 향아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근원적 모성이라는 우로보로스(Uroboros)를 연상케 한다. ‘꼬리를 물고 있는’ 원 모양의 뱀인 우로보로스(Neumann, 1954)의 성질을 지닌 가마는, 진흙으로 빚어낸 향아리가 긴 시간의 정화과정을 거쳐 그 모양과 성질이 변화되어 여성성의 결정체로 재탄생하는 공간을 제공한다.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젓갈과 같은 발효 음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에서 장독대(간장, 된장, 고추장 등 발효 음식을 저장하는 독을 보관하는 공간)는 가족 건강을 책임지는 필수적인 공간이며, 전통적으로 신성한 장소로 여겼다. 장을 담그는 날에

는 금줄을 치는 풍습이 있었는데, 금줄은 나쁜 기운을 막고,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장이 잘 숙성되도록 보호하고, 발효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신성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금줄은 보통 새끼줄로 만들어졌으며, 거기에 숯과 붉은 고추를 달아 상징적인 의미를 더했고, 마무리 단계에는 장위에 숯과 붉은 고추를 올려두어 불순물을 없애 항균작용의 역할을 하였다. 장을 담그는 날은 가정과 가족의 정성이 깃드는 날로 여겨졌으며, 금줄을 통해 정성을 다하고 장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신성함 가득한 작업이다.

향아리에는 장이나 김치, 곡식 등과 같은 음식을 담아두게 되는데, 담아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아리에 담긴 내용물은 숙성이 되어 향아리에서 꺼낼 때에는 다른 모습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향아리 안에 콩과 소금을 넣고 숙성하고 나면 된장이 되고 간장이 된다. 향아리가 숙성 기능이 가능한 것은 향아리가 숨을 쉬기 때문이다. 향아리는 유약을 발라 구웠기 때문에 수분은 차단할 수 있지만, 공기는 안팎으로 서로 순환할 수 있도록 차단하지 않는다. 차단하였으나 여전히 외부와 순환한다는 것은 대극의 합일인 철학자의 돌로 표현되는 자기실현을 연상케 한다(이부영, 2002).

향아리를 보관하는 장독대는 주로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으로 선택되며, 독이 깨지지 않도록 돌로 받침대를 만들어 올려놓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장독대는 단순한 저장소를 넘어, 이질적인 것들이 모여 숙성과 발효 과정을 거치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원숙한 맛을 내는 새로운 음식으로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융합의 공간이다(박종덕, 2019). 특히, 향아리를 정성스럽게 다루었으며 음식을 담는다는 점에서 여성적 수용을 상징한다. 예를 들어 된장, 간장, 고추장과 김치는 향아리에 담아 오랜 시간 숙성과 발효 과정을 거치는데, 고추장이 메줏가루와 고춧가루, 소금을 재료로 향아리 안에서 숙성의 과정을 통해 고추장이 탄생하듯이 김치도 김장독 안에서 배추와 고춧가루, 파, 마늘, 생강 등의 개별적이고 이질적인 재료의 결합과 그 발효의 과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완성된다. 즉, 향아리 안에서 재탄생하는 과정은 부서지지 않고는 새로운 것으로 변화할 수 없는 Neumann(1973)의 자아 발달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흙으로 빚어진 향아리는 대지의 모성이고, 콩으로 만들어진 메줏가루는 대지를 뚫고 식물이 자라게 하는 식물 단계로써 모성에서 분리되지 못한 신화 속 남근적 소년에 비유할 수 있다. 신화의 남근적 소년은 태모를 위한 다신의식 속에서 갈 가리 찢겨 죽임을 당하고 다시 태모에 의해 재탄생되는 과정을 반복하며, 점차 자아와 의식을 태모와 무의식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여전히 승리를 한 정도로 강해지지 못하여 자기파괴와 자기훼손을 하게 된다. 이때 태모의 긍정적 모성이 개입하여 부서진 조각들을 통합하고 씌어가는 것에 새롭게 생명을 주어 죽음을 극복하게 한다(Neumann, 2004/2010).

이 과정은 고추장이 향아리 안에서 숙성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메줏가루와 고춧가

루는 항아리와 서로 다른 물질이지만 동시에 항아리 안에 담겨진 상태이고, 항아리 안은 메춧가루, 고춧가루, 소금 등이 갈가리 찢겨 부서지는 공간이 되며 동시에 모성이 지켜주는 보호의 공간이기도 하며 남근적 소년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가뭇 고추장으로 재탄생의 의미가 있다. 이처럼 숨 쉬는 질그릇 항아리는 여성성의 원형적 상징으로 생명력의 용기이자 무의식의 세계를 포용하는 심리적 자궁이며, 발효는 숙성과 변화를 상징한다(Neumann, 1955). 장을 담그는 행위는 단순한 가사노동이 아니라, 시간과 인내, 무의식과의 협력, 자연과의 조화를 요구하는 상징적 행위로 볼 수 있다. 장이 숙성되어 가는 과정은 자아가 Self를 향해 나아가는 개성화 과정이고, 발효는 통제할 수 없는 자연적 시간 속에서 서서히 이루어지며, 점진적 과정으로 개성화를 상징하고(Jung, 1958), 메춧가루와 고춧가루는 고추장으로 그 모습이 변화되어 재탄생한다.

#### 4. 연금술: 변화가 일어나는 항아리

연금술(alchemy)은 금속을 더 가치 있는 금속인 금으로 만드는 화학(chemistry) 과정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연금술사들은 자신의 상상을 통해 영적(spiritual) 의미를 불어 넣어 정신과 상상이 깊게 연관되는 것을 깨달았다(장미경, 2022). 또한 본래의 연금술 과정에 사랑과 열정(passion), 정갈한 마음으로 장시간의 반복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연금술사들은 자신들의 성격이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된 것에서 유래한다. 후에는 신의 본질(god's essence)을 상징하는 금이나 철학자의 돌(philosopher's stone, mercury)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하게 된다(Andrea Aromatico, 1998). 이는 연금술의 개념이 물질적인 속성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인 가치와 합일을 의미하며, 영적 변화의 중요성을 말한다. Jung에게 연금술은 정신의 자연스러운 통합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성화 과정의 상징으로 보았다. 개성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대극의 합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금술의 과정에서 수동적 여성원리인 달의 상징인 수은과 능동적 남성원리인 해의 상징인 유황이 결합하여 혼돈의 상태가 되고, 용기 안의 검은 물질로 흑화(nigredo, blackening, darkening)단계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서 검은색은 어둠, 죽음, 갈등, 두려움에 비유된다. 죽음을 통하여 영과 혼이 몸에서 분리되면, 혼이 새가 되어 빛나는 영의 세계로 날아가는 것이 승화(sublimation)의 과정이고, 곧 정화의 길이다. 다음으로 과거에는 의미가 있었고 삶에 에너지를 주었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잃고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백화(albedo, whitening, purifying)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남아 있는 것들은 정화된 것으로 여전히 가치 있는 행동과 태도인 양심이나 깨달음, 높은 원칙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태양의 일출에 비유되는 적화(rubedo, reddening, goddening) 단계는 새로운 것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붉은색 또는 황금색의 성향으로 나타난다(Jung, 2006; 장미경, 2022). 이 과정은 의식화되는 성장의 마지막 단계로 열정의 회복과 새

로워진 에너지로 태도의 변화를 보인다. 예를 들어 나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바람이나 벌레, 뜨거운 햇볕을 견뎌내는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의 삶에서 조율하고 매 순간 어려움을 극복해내며 의미를 알아차리는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의 의식이 비로소 확장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연금술의 용기는 항아리를 연결한 관 모양의 질그릇(aludel)으로(De Givry, 2003), 연금술적인 변환의 기능을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연금술에서 물질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용기(容器, vas hermeticum)는 그 안에서 원질료(prima materia)가 정제되어 최고의 물질인 메르쿠리우스(Mercurius; Mercury) 또는 라피스(lapis), 즉 철학자의 돌이 생겨나는 곳이다. 더 나아가 용기는 단순한 증류통이 아니라 영원한 물(aqua permanens)로서 표현하거나 불이라고 명명하였다(Jung, 1944). 이에 연금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질그릇(aludel)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철학자의 돌을 생성하는 하나의 모체(母體, matrix) 또는 작업이 일어나는 인위적 자궁이다. 즉, 질그릇(aludel)의 상징성은 변화가 일어나는 모성적 자궁으로서 모성과 여성성, 성숙과 변화가 대표적이다. 연금술사는 용기를 통해 해체, 소화, 발효, 응고, 재생의 핵심과정을 관찰하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대극의 요소들과 합일되는 전체성을 발견하게 된다(장미경, 2022). 원질료가 대극의 합일인 현자의 돌로 재탄생되는 과정은 자기실현, 즉 개성화를 떠올리게 한다. 이는 자기(Self)는 대극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대극의 갈등과 대극의 존재를 수용하고 체험함으로써 정신의 전체성인 자기(Self)에 도달하게 된다(이부영, 2002). 그러므로 질그릇(aludel)의 대극적 특성이 항아리 안에 있는 그대로 담고 받아들여 항아리 전체가 자기(Self)에 도달하게 되어 메르쿠리우스로 재탄생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 5. 모래놀이치료에서 항아리 : 중년 여성의 사례(성숙과 변화)

<그림 2, 3>에 나타난 모래상자 장면은 58세의 여성이 만든 것으로, 내담자는 가정과 직장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친정 가족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하고 있었고, 자신이 성인이 된 아들을 지나치게 기대하고 보살핌으로써 아들이 부담을 갖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본 사례는 9개월 동안 주 1회씩, 20회기 진행하였다. 내담자는 어린 시절,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고단하고 바쁘게 살았던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교육열이 없었던 어머니는 딸들이 모두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하루빨리 경제활동을 하기를 강요하였다. 내담자의 언니들은 어머니의 바람대로 상업고등학교에 들어가 고3 때는 취업을 하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다. 내담자는 어려운 가정형편을 극복하려면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업을 해야 한다는 신념과 집안을 일으켜 세운다는 책임감으로 의지를 다졌다. 어머니가 원하는 반대의 방식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기집애가 배워서 어디에 쓰려고 돈이나 벌어서 지 시집갈 밑천이나 만들지 쫓쫓!” 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듯이 들었으며 내담자는 늘 큰 부담을 받았다. 내담자는 그러면 그럴수록 어급니를 악물고 어머니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으며 성적우수 장학금과 아르바이트하여 번 돈으로 무사히 대학을 졸업한 후 대기업에 취업하였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가장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자매들은 경제적인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지냈으며 어머니를 실질적으로 보살피주는 것으로 역할이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돌아가신 내담자의 큰언니에 대한 연민과 동시에 상실을 재경험하면서 애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결혼 후 내담자는 어머니처럼 살지 않으려고 자녀에게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태도는 대물림이 되어 내담자의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다라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성인이 된 아들은 이로 인해 우울하고 지친 상태가 되었고, 내담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내담자는 자책과 우울감을 느끼며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림 2] 7회기 (2024년 10월 31일 촬영)

<그림 2>는 총 20회기 중 7회기의 모래상자 장면을 보여준다. 내담자는 모래상자에 시루와 향아리 2개를 놓고 그 주위에 과일바구니와 환영하는 토끼 리스를 놓았으며, 그 시루와 향아리를 “숨 쉬는 향아리”라고 하였다. 내담자는 시루에 떡을 찌주었던 어머니를 떠올리며 바삭해진 시루분을 먹었던 기억과 함께 양가감정이 통합되어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내담자는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과 소용돌이치는 감정들을 시루와 향아리에 담아 뚜껑을 덮고, 진심을 담아 인내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였다. 또한 아들에 대해서도 일관되지 않은 내담자의 태도를 알아차리면서 독립할 수 있도록 거리를 두는 태도로 대하고자 했다. 눈물의 시간이 지나면 성숙하는 발효의 시간이 이어지고, 결국엔 변화한 모습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내담자는 오랜 시간 안에서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을 향아리에 담고 아들이

혼자 설 수 있도록 기다려 주기로 했다.



[그림 3] 20회기 (2025년 4월 5일 촬영)

<그림 3>은 총20회기 중 20회기의 모래상자 장면을 보여준다. 내담자는 모래상자의 중앙에 항아리를 놓고 그 주위에 가마우지로 낚시하는 노인과 연꽃, 봄을 알리는 벚꽃나무와 개구리를 놓았으며, 그 항아리를 “발효가 잘된 술 항아리”라고 하였다. 내담자는 자신의 어머니와는 다른 부모가 되겠다며 완벽하려고 애쓰면서 항상 부담과 긴장 속에서 종종거리며 살아왔기에 부정적인 모성의 틀에 갇히기 쉬운 성향으로 보인다. 내담자는 아들에 대한 기대와 통제가 경직된 모성으로 나타나 애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내담자 자신도 우울감으로 아들의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러나 치료 과정을 통해 내담자는 눈물의 상처를 드러내고, 반복적으로 상담사와 모래상자에 투사하면서 감정을 알아차리고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20회기의 항아리는 내담자의 우울감과 상처가 잘 발효된 술항아리처럼 익어가고 변형된 술처럼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려움이 있어도 편히 설 수 없었던 내면이 이제는 항아리처럼 ‘숨쉬는’ 변화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이다.

### Ⅲ. 결론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용도로 널리 사용되는 항아리의 특성과 민담, 종교, 연금술에 나타나는 상징성과 중년 여성의 내담자의 사례를 통해 그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항아리는 모성과 여성성, 인내와 수용, 성숙과 변화, 죽음과 재탄생이라는

보편적 상징성을 지니며, 동시에 내면의 변화를 담아내는 ‘용기(vessel)’로 기능함을 확인하였다.

연구를 통해 확인된 항아리의 상징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담에서 항아리는 무의식과 여성성(anima)의 수용, 심리적 성장과 개성화 과정, 그리고 욕망과 창조력의 양면성을 드러내는 그릇으로 나타났다. ‘우렁각시’와 ‘요술 항아리’, ‘단지 할머니’, ‘식장산의 효자’ 등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항아리는 고난 속의 인내, 보호, 양육, 심리적 재탄생의 공간을 상징한다.

둘째, 종교에서 항아리는 신앙과 생명, 고난 속의 인내, 내적 변화와 완성을 담는 상징적 공간으로 나타난다. 조선 후기 천주교 신자들의 사례에서 항아리는 신앙 서적과 성물을 숨기는 보호의 그릇이자, 고난을 견디는 인내와 여성성을 상징한다. 도교에서는 속세를 초월한 내면 수련의 공간, 기독교에서는 가나 혼인자치에서 돌항아리에 담긴 물이 예수님의 손을 통해 포도주로 변화되는 과정에 비유하여 신앙의 성장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하는 강력한 상징을 표현한다. 불교에서는 사리를 담아 죽음을 극복하고 자기 초월에 이르는 완성의 그릇으로 이해된다.

셋째, 숨 쉬는 질그릇으로서 항아리는 흙과 물로 빚어 고열의 가마에서 여러 번 구워지는 죽음과 재탄생의 상징이며, 여성성의 정화, 변화를 상징한다. 장독대는 햇빛과 바람이 잘 드는 곳에 놓이며, 금줄, 숯, 고추 등으로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졌다. 항아리는 발효와 숙성을 통해 이질적인 재료를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은 자아의 점진적 변화와 성숙을 나타낸다. 또한 항아리는 모성적 자궁, 무의식의 공간, 개성화로 향하는 심리적 변화의 장소로, 발효는 자아가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성숙해가는 자기실현을 상징한다.

넷째, 연금술에서 용기(질그릇, aludel)는 내적 변화와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나타난다. 연금술은 단순히 금속을 금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기원과 정성이 깃들여진 정신적, 영적 변화의 상징이며, Jung은 이를 자기실현, 즉 개성화 과정으로 보았다. 연금술의 과정은 흑화(nigredo), 백화(albedo), 적화(rubedo)로 이어지며(Jung, 2006; 장미경, 2022), 각각 혼돈과 죽음, 정화와 자각, 재탄생과 통합을 거쳐 의식이 확장되는 개성화의 여정을 담고 있다.

다섯째, 모래놀이치료에서 중년 여성의 사례에 나타난 항아리는 내담자의 감정을 담아 발효시키는 상징적 그릇으로, 억압적 모성 경험에서 벗어나 성숙한 변화를 이루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드러냈다. <그림 2> 7회기에서 내담자는 시루와 항아리를 “숨 쉬는 항아리”로 표현하며, 어머니에 대한 양가감정을 담아내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그림 3> 20회기에서 항아리는 “발효가 잘된 술 항아리”로 변하며, 내담자의 치유와 성숙을 상징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선행 연구와 비교하면, 항아리의 상징성은 일관되게 모성성(이영주, 2019)과 여성성(박서희, 2022), 인내와 수용, 변화와 성숙(서성희, 2019), 죽음과 재탄생, 그리

고 내적 변화의 그릇(곽수경, 2019)이라는 공통된 맥락을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종교적·연금술적 의미와 민담 속 상징을 치료적 장면에 연결함으로써, 향아리가 심리치유와 자기실현 과정에서도 유효하게 작동하는 상징임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확장성을 지닌다. 특히 발효와 숙성이라는 생활 속 기능을 내담자의 심리 변화와 연결한 해석은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드물었던 새로운 맥락이다.

다만 본 연구는 단일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내담자의 모래놀이치료 과정을 심층 분석하여, 향아리 상징이 치료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연구를 제안한다.

## 참고문헌

- 곽수경 (2019). 향아리: 자기실현을 향한 변형의 공간. *상징과 모래놀이치료*, 10(2), 1-15.
- 김민경 (2016). 모래놀이치료에서의 '향아리' 상징에 대한 고찰. *모래놀이상담연구*, 12(1), 44-59.
- 김보애 (2004). *신비로운 모래놀이치료*. 학지사.
- 김열규 (2001). *한국인의 의식구조*. 집문당.
- 민경은 (2005). *옹기점의 민속학적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윤식 (2005). *우리 할머니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옛이야기 100가지*. 자유문학사.
- 박서희 (2022). 자스민 (Jasmine): 소금의 지혜로 관계하는 치유의 여성성 - 모래놀이 치료를 중심으로. *상징과 모래놀이치료*, 13(1), 161-214.
- 박순영 (2010). *한국 전통그릇의 상징성과 여성성*. 전통문화연구소.
- 박종덕 (2019). 이해인 시의 은유와 영성. *어문연구*, 100, 293-316.
- 방병선 (2002). *순백으로 빚어낸 조선의 마음, 백자*. 돌베개.
- 서성희 (2019). 향아리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연구. *상징과 모래놀이치료*, 10(1), 109-130.
- 오진령 (2012). *콩쥐 팥쥐에 나타난 모성 콤플렉스와 개성화 과정에 대한 연구*. 평택대학교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부영 (2002).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 이영주 (2019). The Toad Houses as a Symbol of Transformation of Maternity. *Journal of Symbols & Sandplay Therapy*, 10(2), 17-33.
- 이희봉 (2012. 2. 8). "5. 사리는 왜 향아리에 들어있는가?", *법보신문*,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9341>.
- 장미경 (2022). *분석심리학적 모래놀이치료*. 학지사.
- 최석환 (2009). *융 심리학과 신화의 세계*. 학지사.

- 한국문화상징사전편집위원회(2006). 한국문화상징사전2. 동아출판사.
- 한국민속대백과사전. '단지할매' 항목. <http://folkency.nfm.go.kr>
- Andrea Aromatico (1998). 연금술 (성기완 역). 시공디스커버리.
- Annehale, C. (2006). The alchemy of color in Flannery O'Conner's "Revelation". *Spring* 74(Alchemy), 107-122.
- Cooper, J. C. (1978/1994). 그림으로 보는 세계 문화 상징 사전 (이윤기 역, 원제: An illustrated encyclopedia of traditional symbols). 까치글방.
- Coudert, A. (1995). 연금술 이야기 (박진희 역). 민음사.
- De Givry, G. (2003). 마법사의 책 (임산·김희정 공역). 루비박스.
- Jung, C. G. (1944). CW 12, *Psychology and Alchemy*,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paras. 350-351.
- Jung, C. G. (1958). *Psychology and Religion*. Yale University Press.
- Jung, C. G. (1959).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ung, C. G. (1985/2004).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Erlösungsvorstellungen in der Alchemie).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서 6권.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 솔출판사.
- Jung, C. G. (2006).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한국융연구원 C. G. Jung 저작번역위원회 역). 솔출판사.
- Neumann, E. (1954). *The origins and history of consciousness*. Bollingens Series XLII. Princeton University Press.
- Neumann, E. (1955). *The great mother: an analysis of the archetype*.
- Neumann, E. (1973). *The child*. Shambhala.
- Neumann, E. (2004/2010). 의식의 기원사 (이유경 역). 분석심리학연구소.
- Neumann, E. (2009). 위대한 어머니 여신 (박선화 역). 살림출판사.
- Steinhardt, L. F. (2013). *On becoming a Jungian sandplay therapist: The healing spirit of sandplay in nature and in therapy*. Jessica Kingsley Publishers.

투고일: 2025. 06. 14  
수정일: 2025. 07. 07  
게재확정일: 2025. 07. 22

## The Jar as a Breathing Vessel: A Symbol of Patience and Transformation

Lee Jeongok\*

###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symbolism of the jar as it appears in folktales, religion, alchemy, and Sandplay therapy. In Korean folktales such as “The Freshwater Snail Bride,” “The Old Lady in a Jar,” and “The Filial Son of Mt. Sikjang,” the jar appears as a symbolic vessel representing the integration of the unconscious, maternity, patience, and psychological transformation. In religious contexts such as Catholicism, Taoism, and Buddhism, the jar symbolizes self-realization through suffering, endurance, inner reflection, and acceptance. In alchemy, the earthenware vessel (*aludel*) serves as a container for inner transformation and individuation, symbolizing the integration of opposites and rebirth through the stages of *nigredo*, *albedo*, and *rubedo*. In a case study of a middle-aged woman in Sandplay therapy, the jar emerged as a symbol of maturity and healing, containing her repressed emotions and ambivalent feelings toward maternity, and reflecting a process of awareness and therapeutic chang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dentifies the symbolic significance of the jar across various domains-as a representation of the mother and the feminine, patience, maturity, death and rebirth, and ultimately, therapeutic transformation.

*Keywords* : jar, symbol, patience, transformation, Sandplay therapy

---

\* First author, Director of Gangnam Mam-Pyeonhan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 E-mail: jade935@daum.net



Copyright ©2025,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I. INTRODUCTION

The jar has been used as an essential vessel in daily life and rituals since prehistoric times, serving various purposes such as a ritual utensil, a storage vessel, and a tea cup (Kim, 2016). Beyond being a simple household tool, the jar carries rich symbolism in folktales, religion, alchemy, and other diverse cultural contexts. The Korean folktale “Freshwater Snail Bride” is a prime example of the jar’s symbolism. In the story, a poor young man places a freshwater snail he found in a rice field into a jar, from which a beautiful maiden emerges to take care of household chores. Later, the young man marries her and begins a new life. In the folktale, the young man living alone may symbolize the lack of integration with his own anima. Ultimately, through the snail maiden, he becomes aware of what is missing in his inner world and experiences the process of integration. The anima, as the feminine archetype in a man’s unconscious, was seen as bringing creative order and emotional balance to a man’s life (Jung, 1959). The act of placing the freshwater snail into the jar symbolizes “containing”-embracing and respecting the unconscious rather than treating it carelessly-and this process leads to the journey of individuation, which requires patience.

The jar is also historically a symbol representing the mother and feminine archetypes. It is noteworthy that many Korean earthenware potters were Catholics. At the end of the 18th century, when Catholicism was first introduced to Joseon<sup>1)</sup>, it came not as a religion but through the scholarly interests of *Silhak*<sup>2)</sup> scholars who were studying Western learning, particularly works such as *The True Meaning of the Lord of Heaven*. However, acts such as rejecting Confucian ancestral rites or burning ancestral tablets were regarded as denying traditional ethics, especially filial piety, and thus brought persecution and oppression. Starting with the 1791 Shinhae Persecution, Catholic villages were formed, and believers produced earthenware to conceal their identities and make a living. The earthenware kiln was used for more than just production-it also functioned as a hiding place for escaping persecution and as a prayer hall for conducting Mass (Min, 2005). These earthenware kilns, carved into the earth, created an embracing space that symbolized maternal acceptance and protection. The Masses celebrated within them became symbols of individuation—acts of self-realization that endured suffering and oppression while bringing about spiritual transformation. Catholicism began as the scholarly inquiry of *Silhak* scholars but gradually took root and spread as a religion through periods of persecution. Believers sustained their livelihood by creating earthenware in the mountains and, in the process, preserved and spread their faith. Thus, earthenware came to embody faith and survival, patience and transformation.

The jar is regarded not merely as a storage vessel but as a representative symbol of maternal

---

1) A dynastic kingdom that ruled Korea from 1392 to 1897.

2) A Korean Confucian social reform movement in the late Joseon Dynasty.

feminine. Its form resembles that of a woman carrying a child, and thus it is perceived as a symbol of maternity, while its round, enclosing structure evokes the image of the womb (Cooper, 1978; Neumann, 1955). Thes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establish the jar as a symbolic object directly connected to the presence of the mother, extending beyond the role of a simple tool. Its symbolism lies in the fact that the jar is associated with the creative qualities of women, who conceive and protect life (Park, 2010). Moreover, the jar is not limited to merely storing its contents but also serves as a space where they mature and transform over time. For example, food undergoes fermentation inside a jar and acquires new properties, a process that symbolically resembles the way life grows and comes to completion within the womb (Oh, 2012). In this way, the jar possesses the attributes of a space of maturation, change, and transformation, embodying not only the concept of static storage but also the principle of dynamic transformation (Neumann, 2009). This attribute corresponds to another aspect of maternity—the process of nurturing life and then releasing it as an independent being.

In Korean folk customs, the jar was regarded as highly precious. When moving to a new home, it was the very first item to be carried, and as proverbs such as “Every jar must be filled with water to ensure prosperity” and “Dreaming of a jar means good fortune and longevity” attest, it was seen as a symbol of wealth and auspiciousness. In particular, mothers in the past spent much time beside jars. The *jangdokdae*—the terrace where jars were kept—was a sacred space, neatly managed in a spot with good ventilation and full sunlight (Korean Cultural Symbols Encyclopedia Editorial Committee, 2006). Within the waiting time in which kimchi, soybean paste, soy sauce, and red pepper paste fermented and matured, it embodied an indigenous and steadfast maternal image that safeguarded the family’s health and life (Lee, 2008). In the Korean culture, earthenware jars were regarded as vessels of life that stored the household’s energy and fortune, always tended and cared for by the mother’s hands (Kim, 2001). The act of fermenting sauces in these jars symbolized both a prayer for the family’s health and well-being and the labor of maternal care and life sustenance. This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symbolism of the jar as a “space that holds and ripens life,” much like the womb. Jars were used to contain salt, sauces, and kimchi for maturation, and expressions such as “to make kimchi,” “to make soybean paste,” or “to make soy sauce” in the Korean language denote the act of containing. Maturation, in turn, symbolizes the union of the opposites and the act of acceptance. For example, making soybean paste requires the chemical reaction between fermented soybean blocks and brine. Transformation occurs when the ingredients harmonize well, but if fermentation fails, union does not take place. The fermentation of kimchi and soy sauce also represents transformation. Furthermore, the process of kneading earth and water and then firing it in flames to create a jar can likewise be understood as a symbol of transformation and healing.

The jar, made by shaping earth and water, drying it in the wind, and firing it with flame, is

a nature-based object and a symbol of the archetypal mother. It must undergo a trial by fire – first fired after applying glaze, then glazed and fired again-before it is finally complete (Lee, 2002). This process requires acceptance and patience, and it symbolizes endurance, transformation, and ultimately individuation. The archetype is a universal image rooted in the collective foundations of the human unconscious, and among them, archetypal maternity is the image of the collective unconscious connected with life, protection, acceptance, and nourishment (Jung, 1959). Vessel, womb, and earthenware are representative symbols of this archetype.

The jar is fired in a kiln at 1,200-1,300°C, during which fine pores are formed that circulate air between the inside and the outside, facilitating fermentation and maturation and allowing food to be preserved for long periods. Through this process of production and its function, the jar becomes a “breathing vessel,” one that contains transformation (Lee, 2002). The contents within change over time into new forms. For example, as brine and soybeans ferment into soybean paste and soy sauce, the maturation process within the jar becomes a symbol of transformation reminiscent of alchemy. As an indispensable tool in daily life for storing grains, kimchi, and sauces, and as a vessel that embraces both life and change, the jar holds profound cultural significance in Korea.

Alchemy was originally a technique of transforming ordinary metals such as copper, tin, lead, and zinc into gold by heating them and putting them through a series of processes. Alchemists used the *aludel*-a series of earthenware jars fitted one over another like a tube-in which they mixed various substances with sulfur, mercury, and salt. By altering the proportions of salt, water, and fire, they initiated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De Givry, 2003). Alchemists valued the endurance and patience demanded by the long pursuit of gold. Just as they discerned the gold concealed within ore, they also perceived the soul imprisoned within matter. To produce gold, alchemists believed it was necessary to introduce something contrary to what had been extracted, so that the soul within matter could take form. In this way, they projected spiritual significance onto their physical labor through imagination, working with the soul of matter. This soul was called the *anima mundi*, or soul of the world (Annehale, 2006).

Although alchemists aimed to obtain gold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matter’s primordial substances, in practice they could not transmute base matter into gold. Rather than pursuing material gold, alchemists sought spiritual value through the purity inherent in matter. In other words, they sought gold as a symbol of essence or divine substance-God’s essence-or the philosopher’s stone, which represented the process of mystical transformation (Aromatico, 1998). The philosopher’s stone can thus be understood as a medium that, in the quest for gold as the symbol of the divine Self, engenders transformation, healing, and ultimate integration. Alchemists placed their aim not on producing material gold but on creating

philosophical gold, meaning the transformation of the soul and their own spiritual change. Analytical psychology explained this transformative process as one connected to the Self and to healing (Jung, 1985/2004). The alchemist's *aludel* may be regarded as an artificial womb in which the work unfolded. Just as a fetus undergoes successive stages of transformation and growth within the womb, the alchemical vessel was viewed as a maternal space of endurance, where outcomes were gradually brought forth over long periods of time (Coudert, 1995).

In Sandplay therapy, the sand tray serves as a vessel that provides a maternal space, a psychological womb—a safe and stable environment in which the Self can be expressed, wounds can be healed, and transformation can take place (Kim, 2004). The tray is filled with sand, a symbolic material representing earth, maternity, existence, and the body. As earth—the foundational substance that forms the planet—and as the Great Mother, sand symbolizes the power that embraces, nurtures, and transforms all living beings. Formed over long periods of time as rocks break down and erode, each grain of sand contains the deep history of the earth, making it *prima materia*. In alchemy, this is understood as the “pre-differentiated material” symbolizing the transformative process of the human psyche, often represented by the image of the ouroboros, the serpent biting its own tail (Jang, 2022).

As *prima materia*, sand signifies that the sand tray itself is a space symbolizing the client's psyche, body, and unconscious. Within this space, the materials of the unconscious are represented and gradually reintegrated with both the psyche and body, a process through which individuation takes place. Individuation is the realization of an encounter with the Self; often, precious figures placed in the sand tray serve as the symbol of the Self. Thus, the sand tray becomes a symbolic vessel within the client's inner world—a free and safe maternal space that enables transformation through inner exploration and growth. Just as the jar serves as a vessel of the maternal feminine, transformation, and maturation, so too can the sand tray be regarded as another symbolic jar that contains the processes of psychological healing and transformation

In Sandplay therapy, the process is deeply influenced by the unity (i.e., authenticity) between client and therapist, making the therapist's role crucial. During the client's creation of the sandpicture, silence is necessary. While the therapist should respond when the client asks questions, if the therapist initiates questions, it can interfere with fully understanding the client. Therefore, Steinhardt (2013) stated that a single question—“How did you feel while making this?”—is sufficient. The therapist must be able to wait without impatience even during periods of silence, and for repressed clients, this waiting time serves an integrative function that allows associations to continue flowing. Even if sufficient associations do not emerge, the therapist must patiently listen while respecting the client's themes and directions, and strive to understand by connecting the narrative to the sandpicture—only then can

transformation toward the individuation process that leads to wholeness occurs. In other words, if the therapist abandons the attempt to understand immediately and instead listens attentively to the client's sensations and emotions while waiting, the client who has formed a trust relationship (i.e., rapport) with the therapist will provide figures pointing toward individuation and self-discovery.

The jar is itself a symbol of maternity and, as an object used often by mothers, has functioned not as a mere physical container but as a symbol of "life and time, care and continuity." Now that our society has become increasingly individualistic, when something displeases us, we struggle to embrace and accept others. Embrace and acceptance do not mean doing everything others want, but rather accepting that such aspects exist as they are. However, people today believe they must fight and struggle to obtain what they want, considering others unimportant, and this social and personal fragmentation can be seen as a lack of the feminine. Therefore, we can say that we have reached a point where change is necessary, as our individualized society as a whole lacks the maternal culture that contains and embraces.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provide an integrated examination of the symbolism of the jar as it appears in folktales, religion, alchemy, and Sandplay therapy. In particular, through Sandplay therapy cases, it seeks to explore how the jar functions in clients' psychological growth and healing processes. Through this exploration, the study aims to reinterpret the symbolism of the jar within the contexts of the mother and the feminine, patience and acceptance, maturity and transformation, and to present implications for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 **II. MAIN DISCUSSION**

### **1. The Jar in Folktales**

The "Magic Jar" is a folktale symbol of transformation, represen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conscious and the ego, as well as the tension between desire and restraint (Korean Cultural Symbols Encyclopedia Editorial Committee, 2006). The story begins when a farmer, while plowing his field, discovers a round jar. This moment signifies the beginning of the journey of individuation-that symbolic point at which a human being first confronts the unconscious. The act of cultivating the field represents the preparation of life's foundations and may be seen as a precursor to shaping the jar itself-a symbolic work towards the archetypal mother.

When the farmer placed a hoe inside the jar, countless hoes emerged; when he placed a single coin, it was infinitely replicated. This process of duplication and multiplication suggests that the jar is not merely a storage vessel but an archetypal maternal tool that enables creation and growth. Depending on what is placed inside, the jar generates identical copies, thereby serving as a symbolic space at the threshold of the unconscious and the conscious, where inner material is brought into consciousness-making communication with the Self possible.

However, the two figures who encounter the jar—the pure-hearted farmer and the greedy rich man—display entirely different attitudes. The farmer expresses gratitude for the jar’s function and humbly enjoys its benefits, while the greedy man exploits the jar to satisfy material desires, ultimately losing control. This folktale warns that when the power of the unconscious is used solely for ego-centered purposes without reflecting on its symbolism, psychological balance may be lost.

In particular, the scene in which the rich man’s father falls into the jar and is endlessly replicated symbolically represents the father complex. The father complex refers to a state in which the ego fails to grow in an independent pathway and instead remains under paternal authority or repression. In this way, if one pursues only material desires without exploring the symbols of the unconscious, the ego cannot individuate and becomes trapped in regression or repetitive psychological patterns.

The magic jar, therefore, is not merely a magical object that replicates anything placed inside it; rather, it is a vessel that makes possible inner transformation. It operates at the boundary of human good and evil, restraint and desire, conveying a symbolic message that outcomes are determined by the way one relates to the Self.

Another folktale, transmitted primarily in the southern regions of Korea, is the narrative of the “Old Lady in a Jar.” According to the tale, an orphaned child, weakened by hunger and lacking food, one day crawled into a large jar and fell asleep while crying. Remarkably, the child did not perish inside but instead became well-nourished and healthy. When the villagers later looked into the jar, they discovered that an unseen presence had been feeding and caring for the child. From that point on, the community venerated this invisible caregiver, referring to her as the “old lady in a jar” and regarding her as a sacred being. The child eventually grew into a figure who brought prosperity and blessings to the village, and, in commemoration, the villagers instituted annual rituals dedicated to the old lady, seeking abundant harvests and continued health.

The jar here functions as a symbolic vessel identified with the womb, embodying meanings of life, protection, acceptance, nurturing, and patience. It is not an escape from suffering or

deprivation, but a space of containment that embraces them—a vessel of inner healing, growth, and transformation. The child does not resist his circumstances actively, but simply enters the jar, weeping and falling asleep. This act reflects the feminine symbolism of patience and acceptance, and can be seen as what Jung described as “the process of confronting one’s shadow” (Choi, 2009). By accepting his fate as well as his wounds and deprivation, the child achieves growth. The old lady in a jar represents the archetypal mother within the collective unconscious, supplying life energy so that the child may survive—serving simultaneously as protector, nurturer, and healer. Though formless, she embodies the mother who embraces the wounded child just as he is, demonstrating absolute and unconditional acceptance. The child’s growth within the jar signifies preparation for the integration of ego and unconscious, symbolizing the profound truth that transformation occurs through patience. Emerging from the jar represents psychological rebirth: the wounded ego is reborn as an integrated Self, marking the process of individuation.

The story of the “Filial Son of Mt. Sikjang” appears in Min’s folktale collection (2005). Long ago, at the foot of Sikjang Mountain, a filial son and his wife lived in poverty with his aged mother and their young child. As the child grew, he began consuming the food that had been prepared with care for the mother. After much anguish, the couple decided to bury the child in the mountain. As they dug the earth, however, they discovered a mysterious vessel. Looking into it, the wife tearfully pleaded that they both save the child and continue caring for the mother. The son agreed and carried the child home. The two carefully cleaned the vessel and used it to store grain and coins. Miraculously, they were multiplied. Accepting this wondrous vessel as a gift from Heaven in recognition of their filial piety, the couple resolved to use it only during the mother’s lifetime. Through their sincerity, they became prosperous, and after the mother’s passing, they buried the vessel back in its original place. From this, the mountain came to be known as Sikjang Mountain, or was also sometimes called “Vessel Mountain.”

This folktale, though rooted in an era that exalted filial devotion and may be difficult to grasp from a modern perspective, carries symbolic meaning. The couple’s act of digging into the mountain soil signifies an entry into the unconscious, marking the beginning of transformation and growth. As they attempted to bury the child, the couple encounters the miraculous vessel—symbolizing the discovery of the unconscious feminine principle—and the wife pleads with her husband to save the child. Symbolically, this is the anima, the archetypal feminine, serving as a vital mediator in catalyzing transformation within consciousness (Jung, 1959).

The filial couple faces a profound moral conflict, torn between desire and conscience. In choosing to preserve both the child and the mother, they embody the path toward the Self. The miraculous vessel becomes the symbol of this path: the difficult “middle way,” in which

the ego accepts the power of the unconscious and, without being overwhelmed by it, achieves harmony with it-which is the process of individuation.

## 2. The Jar in Religion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Catholic believers endured severe persecution while maintaining their faith by hiding in the mountains, where they made and sold pottery jars (*onggi*) to sustain their livelihood. The jar served not only as a means of survival but also as a symbol of protection for preserving their faith, used to conceal religious books and sacred objects. In particular, the incident in which Jeong Yak-yong<sup>3)</sup> was caught attempting to transport Catholic books, sacred objects, and letters from Father Zhou Wenmo<sup>4)</sup> inside a jar became a crucial trigger for the Catholic Persecution of 1801, also known as the Sinyu Persecution. In this history intertwined with political conflict and Catholic suppression, the jar transcended being a mere object to become a symbol of perseverance and suffering in the effort to maintain faith amid persecution. Even in moments of pain, believers did not abandon their faith, nor did they surrender to secular demands. Rather, their choice to hide in the mountains-enduring and accepting hardship while protecting their inner selves-aligned with the symbolic meaning of the jar as a container. Through this process of perseverance, their faith became more steadfast, and inner transformation and maturity were achieved.

In Taoism, the jar symbolizes more than a simple storage vessel; it represents an intimate and tranquil space connected to the immortal realm that transcends the time and space of the mundane world. According to legends from the Later Han dynasty<sup>5)</sup>, an immortal figure would sell medicine during the day and enter a jar hanging in front of his shop at night, where the sun and moon existed within, making it a small but complete universe (Kim, 2016). This jar functions as an intermediate point where one escapes worldly suffering to cultivate the inner world and prepare for transformation through perseverance. It is understood not as a mere refuge, but as a space of cultivation where time flows in curves and self-reflection is possible-a place of provisional tranquility for moving toward transformation and completion.

In Christianity, the Gospel of John chapter 2 describes the wedding at Cana, where water in stone jars is transformed into wine by Jesus. This suggests that before becoming wine, a time of patient fermentation and maturation is necessary, and the process by which water transforms into wine symbolizes fundamental transformation within Jesus.

---

3) A prominent Joseon Dynasty scholar who was deeply influenced by Catholicism.

4) Also known as Ju Mun-mo (Korean pronunciation), he was a Chinese Catholic priest who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early history of Catholicism in Korea.

5) A short-lived imperial dynasty of China that existed from 947 to 951.

In Buddhism, jars are primarily used to contain *sarira*<sup>6)</sup> that are placed inside pagodas, and these *sarira* jar images can also be found in temple *dancheong*<sup>7)</sup> paintings. As shown in Figure 1, there is a pomegranate-shaped vessel on a lotus-shaped base, with a jar shape in the middle from which a spherical form partially emerges, topped by a white dot known as a *minju-jeom* (Lee, 2012). The white seeds emerging from the tip of the pomegranate represent the process of life's birth, and this life emerges from the spherical form called a jar, which contains the Buddha's *sarira*. The jar symbolizes the space of the Great Mother where transformation toward self-realization occurs, and the *sarira* within represents the result of long-accumulated merit through practice, symbolizing the phallic boy who, broken and torn apart by the Great Mother, undergoes death and is transformed through rebirth (Neumann, 2004/2010). The jar transforms the phallic boy who remains trapped in self-destruction and self-harm, and when what is broken and decaying becomes *sarira* in a new form, emerging from the jar to appear as the *minju-jeom*, it symbolizes self-realization that overcomes death.



<Figure 1> *Sarira* jar depicted in *dancheong* painting at Hwaamsa Temple, Goseong, Gangwon Province in Korea (photographed August 14, 2022)

### 3. The Jar as a Breathing Earthenware

To make a jar, clay and water are first mixed and kneaded until they reach a soft state, then shaped into the desired form using various techniques, gradually dried, and fired in a kiln at approximately 850-900 degrees Celsius. The kiln for firing jars is traditionally constructed with walls built of brick or clay. The jar that undergoes initial firing in the kiln is then glazed to create surface luster and then fired again in a kiln at 1,250-1,300 degrees Celsius. Even after completing all these processes, if there are any flaws whatsoever, the jar is destroyed and discarded (Bang, 2002). In other words, the jar undergoes a manufacturing process that involves descent into death and rebirth, including dozens of kneading processes,

---

6) Bead-like, crystal-like relics found in the ashes of highly spiritual Buddhist masters after their cremation

7) Traditional Korean art of multicolored decorative painting on the wooden surfaces of buildings.

repeated trials by fire in high-temperature kilns, and sometimes disposal.

The jar, formed from the feminine elements of clay and water, encounters fire that symbolizes purification, transformation, and rebirth, whereby all impurities within the clay are purified and it is born as a jar-the crystallization of the pure feminine (Cooper, 1978/1994). Traditional kilns used to create jars are literally spaces made of brick or clay. The practice of lighting fire inside a kiln made of clay and water-feminine materials-to purify itself while simultaneously creating jars made of the same materials evokes the Uroboros, the primordial maternity. The kiln, possessing the qualities of the Uroboros-the circular serpent biting its own tail (Neumann, 1954)-provides a space where clay-formed jars undergo a lengthy purification process, transforming in shape and nature to be reborn as crystallizations of the feminine.

In Korean food culture, where fermented sauces and condiments such as soy sauce, soybean paste, red pepper paste, kimchi, and salted seafood play crucial roles, the *jangdokdae* serves as an essential space responsible for family health and was traditionally regarded as a sacred place. On the day of making sauces and condiments, there was a custom of hanging a sacred straw rope called *geumjul*. The *geumjul* carried the meaning of warding off negative energy while drawing in positive energy. In particular, i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the food inside the jar so that it could mature well and in keeping the environment sacred for smooth fermentation. The *geumjul* was usually made of twisted straw, to which charcoal and red chili peppers were attached to add symbolic meaning. At the final stage, charcoal and red chili peppers are also placed on top of the food before the jar is closed, serving as a way to remove impurities and provide antibacterial effects. The day of making sauces and condiments was regarded as a day imbued with the devotion of the household and family, and through the *geumjul*, people expressed their sincerity and prayed for the food to turn out well-a sacred act filled with reverence.

Food items such as sauces, condiments, kimchi, and grains stored in jars are not just contained within; the contents stored in the jar undergo maturation and take on a different form when removed from the jar. For example, when beans and salt are placed in a jar and allowed to mature, they become soybean paste or soy sauce. The jar's capacity for maturation is possible because the jar breathes. Because the jar is glazed, it blocks moisture while still allowing air to circulate in and out. The fact that it blocks yet still interacts with the outside evokes self-realization represented as the philosopher's stone, which symbolizes the union of the opposites (Lee, 2002).

The *jangdokdae* is primarily located in places with good sunlight and ventilation, and has a structure where stone platforms are built to support the jars so they do not break. The *jangdokdae* transcends being a simple storage space; it is a space of fusion where

heterogeneous elements come together to undergo maturation and fermentation processes, achieving harmony with nature and qualitative transformation into new foods with mature flavors (Park, 2019). In particular, the careful handling of jars and the act of containing food symbolizes feminine acceptance. For example, soybean paste, soy sauce, red pepper paste, and kimchi undergo lengthy maturation and fermentation processes in jars. Just as red pepper paste is born through the maturation process of fermented soybean powder, red pepper flakes, and salt within the jar, kimchi is also completed only through the combination of individual and heterogeneous ingredients such as cabbage, red pepper flakes, green onions, garlic, and ginger within the jar, followed by the fermentation process. In other words, the process of rebirth within the jar can be explained through Neumann's (1973) stages of ego development, where transformation into something new is impossible without first breaking apart.

The jar formed from clay represents the mother aspect of the earth. Fermented soybean powder made from beans represents the plant stage that penetrates the earth and enables plant growth, which can be compared to the mythological phallic boy who remains unseparated from the mother. The mythological phallic boy repeatedly undergoes the process of being torn apart and killed in polytheistic rituals for the Great Mother, then being reborn by the Great Mother. He gradually attempts to separate ego and consciousness from the Great Mother and the unconscious, but still not strong enough to achieve victory, he engages in self-destruction and self-harm. At this point, the positive aspect of the Great Mother intervenes to integrate the broken pieces and give new life to what is decaying, enabling the overcoming of death (Neumann, 2004/2010).

This process applies equally when red pepper paste matures within the jar. Fermented soybean powder and red pepper flakes are two different materials, yet they exist within the jar simultaneously. The interior of the jar becomes a space where the soybean powder, red pepper flakes, and salt are torn apart and broken, while also being a protective space guarded by maternity, carrying the meaning of rebirth as red pepper paste, just as the phallic boy transforms into a new being. Thus, the breathing earthenware jar serves as an archetypal symbol of the feminine—a vessel of vitality and a psychological womb that embraces the world of the unconscious, while fermentation symbolizes maturation and transformation (Neumann, 1955). The act of making fermented sauces and condiments is not simple housework but can be viewed as a symbolic act requiring time and patience, cooperation with the unconscious, and harmony with nature. The process of maturation in the jar is the individuation process by which the ego moves toward the Self. Fermentation occurs gradually within uncontrollable natural time, symbolizing individuation as a gradual process (Jung, 1958). Through this process, soybean powder and red pepper flakes are transformed and reborn as red pepper paste

#### 4. Alchemy: The Jar in Which Transformation Occurs

Alchemy refers to the chemical process of transforming metals into a more valuable metal, gold. In this process, alchemists realized that alchemy was about infusing spiritual meaning through imagination, and that the psyche and imagination were deeply interconnected (Jang, 2022). They also came to realize that in the original alchemical process, through love, passion, and a pure heart, and by enduring long periods of repetition, their own personalities were being transformed. Later, alchemy came to signify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into gold as the symbol of God's essence, or into the philosopher's stone (or Mercury) (Aromatico, 1998). This indicates that the concept of alchemy goes beyond material properties to represent spiritual value and union,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spiritual transformation.

For Jung, alchemy reflected the natural integrative process of the psyche and thus was seen as a symbol of individuation. What is crucial in the individuation process is the union of the opposites. In alchemy, the passive feminine principle, Mercury, symbolized by the moon, and the active masculine principle, sulfur, symbolized by the sun, merge into a state of chaos, leading to the stage of nigredo (or blackening, darkening), represented as the black substance within the vessel. Here, black is compared to darkness, death, conflict, and fear. When the spirit and soul are separated from the body through death, the soul becomes a bird and flies to the radiant world of the spirit-this is the process of sublimation, the path of purification.

The next stage is albedo (or whitening, purifying), which signifies removing what once held meaning and gave energy to life but has now lost its meaning and become stagnant. What remains through this process of purification can appear as valuable actions and attitudes such as conscience, enlightenment, or higher principles.

Finally, rubedo (or reddening, goddening), likened to the rising of the sun, represents transformation into something new, expressed in hues of red or gold (Jung, 2006; Jang, 2022). This stage marks the final step of conscious growth, showing renewed passion and transformed attitudes with revitalized energy. For example, just as a tree must endure the wind, insects, and scorching sunlight in order to bear fruit, so too in our lives we come to realize that it is only through patience, continual adjustment, overcoming hardships at each moment, and attaining insight into meaning that our consciousness can finally expand.

The alchemical vessel is a series of earthenware jars fitted one over another like a tube called the aludel (De Givry, 2003), an essential element that enables alchemical transformation. In alchemy, the vessel (vas hermeticum) in which transformation of matter occurs is the place where the prima materia is refined to produce the philosopher's stone (lapis) and Mercury (Mercurius). Furthermore, the vessel is not merely a distillation container; it is called the eternal water (aqua permanens), or is named fire (Jung, 1944). Thu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alchemical process is the *aludel*, which serves as a matrix where the philosopher's stone is created or an artificial womb in which work occurs. Symbolically, the *aludel* represents the maternal womb in which transformation occurs, representing maternity, the feminine, maturity, and change.

Through the vessel, alchemists observe the essential processes of dissolution, digestion, fermentation, coagulation, and regeneration, discovering a wholeness in which previously unknown opposites were united (Jang, 2022). The rebirth of the *prima materia* as the philosopher's stone—the union of the opposites—evokes the process of self-realization, that is, individuation. The Self contains all opposites, and by accepting and experiencing all of these opposites and their conflicts, one reaches the wholeness of the psyche, the Self (Lee, 2002). Therefore, the attributes of the *aludel* allow the containment and acceptance of what is placed in the jar exactly as they are, enabling the entire jar to reach the Self and be reborn as Mercury.

### **5. The Jar in Sandplay Therapy: A Case of a Middle-Aged Woman (Maturity and Transformation)**

The Sandpictures shown in <Figures 2 and 3> were created by a 58-year-old woman. The client appeared to maintain harmonious relationships at home and at work, yet harbored deep mistrust toward her family of origin. At the same time, she realized that by placing excessive expectations on and overly caring for her adult son, she was placing a burden on him and causing anxiety. This case was conducted over nine months, with one session per week, totaling twenty sessions.

As a child, the client grew up under a mother who lived a hard and busy life, substituting for the father who had passed away early. With little interest in education, the mother forced her daughters to enter commercial high schools so they could begin economic activity as soon as possible. As her mother wished, the client's older sisters entered commercial high school, and by their senior year were employed, bringing their mother joy. In contrast, the client resolved to overcome her family's difficult circumstances by attending university and securing a job in a large corporation. She felt responsible for rebuilding the family's finances.

During this process of choosing a career path contrary to her mother's wishes, she repeatedly heard remarks such as: "What's the use of a girl studying? She should just earn money to prepare for her dowry, tsk tsk!" These words weighed heavily on her. The more her mother opposed her, the more resolved the client became about her career path. Without receiving any financial support from her mother, the client successfully graduated from university with a scholarship earned through excellent grades and by working part-time jobs, and was hired

by a major corporation, and has continued to serve as the family's breadwinner to this day. As a result, her other sisters were freed from the burden of financially supporting their mother, and the roles naturally divided so that they cared for her in practical ways rather than financially. During therapy, the client re-experienced the grief of losing her late eldest sister and engaged in the work of mourning, while also processing the compassion she felt toward her.

After marriage, the client vowed not to live like her mother, giving her child abundant love and support. Yet her mother's patterns were passed down: when she gave her utmost to her child but the results were not satisfactory, she would become angry or attempt to control him. Her now-adult son, as a result, became depressed and exhausted, which came as a great shock to the client. This led her to feelings of guilt and depression and to begin therapy.



<Figure 2> Session 7 (Photographed October 31, 2024)

<Figure 2> shows the sandpicture from session 7 out of a total of 20 sessions. The client placed a steamer and two jars in the sand tray, surrounded them with a fruit basket and a welcoming wreath with a rabbit, and referred to the steamer and the jar as "breathing jars." The client recalled her mother steaming rice cakes in a steamer, along with memories of eating the crispy rice crust, and came to a more integrated understanding as her ambivalent emotions were reconciled. She placed her resentment and turbulent emotions toward her mother into the steamer and the jar, covering them with lids, and appeared to embrace a period of patience with sincerity. She also recognized her own inconsistent attitude toward her son and sought to approach him in a way that allowed distance for his independence. After a time of tears follows a period of fermentation leading to maturity, and eventually, rebirth in a transformed state. The client decided to entrust her long-held suffering and pain to the jars and to wait for her son to stand on his own.



<Figure 3> Session 20 (Photographed April 5, 2025)

<Figure 3> shows the sandpicture from session 20 out of a total of 20 sessions. The client placed a jar in the center of the tray, surrounded by an old man fishing with a cormorant, a lotus flower, a cherry blossom tree heralding spring, and a frog. She referred to the jar as a “well-fermented alcohol jar.” Having lived under the constant pressure of striving for perfection as a parent different from her own mother, the client tended to fall into the mold of negative mother, living in a state of burden and tension. Her expectations and controlling attitude toward her son manifested as the rigid mother, negatively affecting attachment, while her own depression hindered her from accepting her son’s emotions. Through the therapeutic process, however, the client was able to reveal her wounds with tears, repeatedly project them into the sand tray and onto the therapist, and gradually recognize and regulate her emotions. The jar in session 20 appears to symbolize a vessel where the client’s depression and wounds have been fermenting well, as if awaiting rebirth like alcohol transformed through fermentation. The inner world that once could not rest despite hardship now seems to be passing through a “breathing” time of transformation, like the jar itself.

### III. CONCLUSION

This study analyzed the symbolic meaning of the jar by examining its characteristics as an object widely used for various purposes in daily life, its symbolism in folktales, religion, and alchemy, and through the case of a middle-aged female client. The results confirmed that the jar embodies the universal symbolism of the mother and the feminine, patience and acceptance, maturity and transformation, death and rebirth, while also functioning as a vessel that contains inner transformation. The symbolism of the jar identified through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n folktales, the jar appears as a vessel that receives the unconscious and the feminine (anima), a container for psychological growth and individuation, and an object that reveals the dual aspects of desire and creativity. In various stories such as “The Freshwater Snail Bride,” “The Magic Jar,” “The Old Lady in a Jar,” and “The Filial Son of Mt. Sikjang,” the jar symbolizes a space of patience in hardship, protection, nurturing, and psychological rebirth.

Second, in religion, the jar is portrayed as a symbolic space containing faith and life, patience in suffering, inner transformation, and completion. In the case of late Joseon Catholics, the jar was a vessel of protection for hiding religious books and sacred objects, and it symbolized endurance in hardship and the feminine. In Taoism, it represents a space of inner cultivation transcending the secular world. In Christianity, the water in stone jars at the Wedding at Cana being transformed into wine by Jesus symbolizes that the growth of faith requires a time of patience and represents the powerful transformation that occurs through Christ. In Buddhism, it is understood as a vessel that contains *sarira*, overcomes death, and leads to self-transcendence and completion.

Third, as a breathing earthenware vessel, the jar symbolizes death and rebirth by being shaped from clay and water and fired multiple times in the intense heat of the kiln. It also represents the purific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feminine. The *jangdokdae* is placed in a location full of sunlight and wind and is regarded as a sacred space with protective elements such as sacred ropes, charcoal, and red chili peppers. The process in which diverse ingredients are transformed into something new through fermentation and maturation represents the gradual change and maturation of the ego. Furthermore, the jar symbolizes the maternal womb, the space of the unconscious, and the site of psychological change toward individuation, where fermentation signifies self-realization through the gradual transformation and maturation of the ego.

Fourth, in alchemy, the *aludel* appears as a symbolic space that enables inner transformation and self-realization. Alchemy is not merely the transformation of metals into gold, but a symbol of spiritual and psychic change imbued with origin and devotion, which Jung understood as self-realization, that is, the process of individuation. The alchemical process proceeds through *nigredo*, *albedo*, and *rubedo* (Jung, 2006; Jang, 2022), each stage representing chaos and death, purification and awareness, and rebirth and integration, all ultimately leading to the journey of individuation.

Fifth, in the Sandplay therapy case of a middle-aged woman, the jar appears as a symbolic vessel in which the client’s emotions are contained and fermented, visually revealing the process of moving beyond oppressive maternal experiences and achieving mature transformation. In Figure 2, the client referred to the steamer and the jar as “breathing jars,” containing her ambivalent emotions toward her mother and engaging in a period of reflection.

In Figure 3, the jar transforms into a “well-fermented alcohol jar,” symbolizing healing and maturity.

When these findings are compared with previous studies, the symbolism of the jar consistently shares the common contexts of the mother (Lee, 2019), the feminine (Park, 2022), patience and acceptance, transformation and maturity (Seo, 2019), death and rebirth, and a vessel of inner transformation (Kwack, 2019). However, this study extends the discussion by connecting the symbolic meanings of religion, alchemy, and folktales to therapeutic processes, demonstrating that the jar also functions effectively as a symbol in psychological healing and self-realization. In particular, the interpretation linking the everyday functions of fermentation and maturation to the client’s psychological change represents a relatively rare and new context not emphasized in previous research.

Nonetheless, since this study focuses on a single case, there are limitations in generalization. Future research should conduct in-depth analyses of Sandplay therapy processes with a wider range of clients to reveal more specifically how the symbolism of the jar operates within therapeutic contexts.

## References

- Annehale, C. (2006). The alchemy of color in Flannery O’Conner’s “Revelation”. *Spring 74 (Alchemy)*, 107-122.
- Aromatico, A. (1998). *Alchemy* (Seong, K. W, Trans). Sigong Discovery.
- Bang, B. S. (2002). *The spirit of Joseon embodied in white porcelain*. Dolbegae.
- Choi, S. H. (2009). *Jungian psychology and the world of myth*. Hakjisa.
- Cooper, J. C. (1994). *An illustrated encyclopedia of traditional symbols* (Lee, Y. K, Trans.). Seoul: Kkachi Publishing. (Original work published 1978).
- Coudert, A. (1995). *The alchemy story* (Park, J. H, Trans.). Minumsa.
- De Givry, G. (2003). *The book of the magician* (Lim, S. & Kim, H. J, Trans.). Rubybox.
- Encyclopedia of Korean Folk Culture.(n.d.). *Danji halmae* [Grandmother Jar]. Retrieved from <http://folkency.nfm.go.kr>
- Jang, M. K. (2022). *Analytical psychology-based sandplay therapy*. Hakjisa.
- Jung, C. G. (1944). CW 12, *Psychology and Alchemy*,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paras. 350-351.
- Jung, C. G. (1958). *Psychology and Religion*. Yale University Press.
- Jung, C. G. (1959).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ung, C. G. (2004). *Erlösungsvorstellungen in der Alchemie* [Ideas of redemption in alchemy] (Korean C. G. Jung Translation Committee, Trans.). Sol Publishing. (Original work

- published 1985).
- Jung, C. G. (2006). *Erlösungsvorstellungen in der Alchemie* [Ideas of redemption in alchemy] (Korean C. G. Jung Translation Committee, Trans.). Sol Publishing.
- Kim, B. E. (2004). *Mysterious sandplay therapy*. Hakjisa.
- Kim, M. K. (2016). A study on the symbol of the “jar” in sandplay therapy. *Journal of Sandplay Therapy Research*, 12(1), 44-59.
- Kim, Y. K. (2001). *The structure of Korean consciousness*. Jipmundang.
- Korean Cultural Symbols Encyclopedia Editorial Committee. (2006).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al symbols 2*. Tong’a Publishing.
- Kwak, S. K. (2019). The jar: A space of transformation toward self-realization. *Journal of Symbols & Sandplay Therapy*, 10(2), 1-15.
- Lee, B. Y. (2002). *Self and self-realization*. Hangilsa.
- Lee, H. B. (2012, February 8). Why are relics contained in a jar? *Beopbo Newspaper*.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9341>
- Lee, Y. J. (2019). The toad houses as a symbol of transformation of maternity. *Journal of Symbols & Sandplay Therapy*, 10(2), 17 - 33.
- Min, K. E. (2005). *A folkloristic study of Onggi potters*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Neumann, E. (1954). *The origins and history of consciousness*. Bollingens Series XL II. Princeton University Press.
- Neumann, E. (1955). *The great mother: an analysis of the archetype*.
- Neumann, E. (1973). *The child*. Shambhala.
- Neumann, E. (2010). *The origins and history of consciousness* (Lee, Y. K, Trans.). Institute of Analytical Psychology. (Original work published 2004).
- Neumann, E. (2009). *The great mother goddess* (Park, S. H, Trans.). Paju: Sallim Publishing.
- Oh, J. R. (2012). *A study on the maternal complex and individuation process in the Korean folktale Kongjwi Patjwi* (Doctoral dissertation). Pyongtaek University, Pyongtaek.
- Park, S. Y. (2010). *Symbolism and femininity of Korean traditional pottery*. Institute of Traditional Culture.
- Park, S. H. (2022). Jasmine: Feminine healing through the wisdom of salt in sandplay therapy. *Journal of Symbols & Sandplay Therapy*, 13(1), 161 - 214.
- Seo, S. H. (2019). A study on the symbolic meaning of the jar. *Journal of Symbols & Sandplay Therapy*, 10(1), 109-130.
- Steinhardt, L. F. (2013). *On becoming a Jungian Sandplay therapist: The healing spirit of Sandplay in nature and in therapy*. Jessica Kingsley Publishers.

Received : June 14, 2025

Revised : July 7, 2025

Accepted : July 22, 2025